

問答으로 알아본

非常時 石油需給 管理對策

—動力資源部—

問 石油 부족사태가 악화되면 일부 油種에 대하여 배급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答 배급제는 石油不足 사태 심각으로 유통질서가 극도로 혼란하여 시장 메카니즘에 의하여는 정상적인 석유유통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하게 될 때, 행정력을 통하여 주유소 및 판매소에서 석유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수요자에 대하여 배급표를 주고, 배급표에 의하여만 石油가 판매·구입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배급제는 시·도지사가 지방행정조직을 통하여 실시하며, 배급 대상 油種은 민생용 연료인 휘발유, 燈油, LPG이다.

한편 배급제는 최종 행정단위인 읍·면·동을 기준으로 읍·면·동장이 작성하는 배급 대상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石油를 사용하는 가구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배급표의 교부 절차는 시·도→시·군→읍·면·동으로 이루어지고, 배급표 회수는 주유소·판매소→대리점→精油社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전시, 사변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問 精油會社와 대리점 단계에서 직판되고 있는 물량에 대하여는 할당 공급한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

答 현행 石油유통체계는 精油會社→대리점→주유소(판매소)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유회사는 제조업, 대리점은 도매업, 주유소와 판매소는 소매업으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韓國電力 같은 대수요처나 石油를 많이 쓰는 공장에서는 精油會社 또는 대리점과 직접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들 대수요자들의 거래 상황은 월별로 韓國石油開發公社의 電算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精油社와 대리점으로 부터 직접 石油를 구매하는 산업체등에 대하여는 석유제품 부족율과 전월 구입실적을 기준으로 업종별 우선 순위에 따라 정부에서 거래 물량을 지정하게 되며, 공급자인 精油會社와 대리점은 지정된 물량을 업체별로 할당·공급하게 된다.

問 각 공장은 B-C油등 산업용 연료외에 휘사연료용이나 차량연료용으로 LPG, 휘발유, 등유, 경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油種에 대한 공급은 어떻게 되나?

答 LPG, 휘발유, 燈油, 輕油는 가정부문, 상업부문, 수송부문의 취사·난방 및 차량연료로서 主宗을 이루고 있어 이들 油種의 경우에는 산업체에 대한 특별배려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소비억제가 불가피하므로 精油社 및 대리점 단계에서 일정율만큼 감량 공급되게 된다.

問 精油會社에서 나프타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肥料, 石油化學業체에 대한 나프타 공급은 어떻게 되나?

答 정부 수급판단으로 볼 때, 나프타는 약 10%정도 물량이 부족하게 되어 肥料, 石油化學業체에 대한 나프타 공급은 평시보다 각각 10% 감량 공급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각 업체별 감

량공급율은 商工部등 관계부처에서 결정하게 된다.

問 가정 및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B-C油, 輕油등의 난방연료 공급은 어떻게 되나?

答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난방용 연료로서는 B-C油, 輕油 및 등유가 있는데, 만약 호루므즈해협 봉쇄사태가 동절기에 발생하게 되면, 이들 油種에 있어서도 소비억제 조치가 불가피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난방시간조정, 표준온도 18℃ 유지 등 간접적인 수요감축조치로 대응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아파트등 집단주택에 대하여는 대리점 단계에서 감량공급도 실시할 계획이다.

問 精油會社와 대리점에서 石油(B-C油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각종 산업체에 대한 석유공급은 어떻게 되나?

答 지난 제 1, 2차 석유파동 당시 국민경제가 겪었던 충격과 석유공급 부족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KDI 분석 결과를 참작하여 석유공급부족이 성장·물가·실업·국제수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負의 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산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연료(B-C, B-A, B-B)는 가능한 한 전량 공급하게 되나, 석유 공급 부족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게 되면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대하여는 다소의 감량공급이 불가피하게 된다.

問 電力부문에 대한 석유공급은 어떻게 되나?

答 韓國電力은 精油會社로부터 직접 B-C油를 공급받아 유류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데, B-C油 전체사용량의 약 55%를 韓電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중 약 39%를 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문의 주된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B-C油의 국민경제상 위치를 감안하여 산업체에 대한 B-C油를 전량 공급한다는 기본원칙 때문에 B-C油의 공급부족량에 대하여는 전량을 발전부문에서 삭감할 방침인데, 이에 따른 발전률도 삭감되기 때문에 가정·상업부문에 대한 강력한 電力소비억제 조치의 시행이 불가피해지게 된다.

問 가정·상업부문의 취사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판의 공급은 어떻게 되나?

答 최근의 가정·상업부문의 연료사용 형태를 보면, 가정용의 경우, 프로판사용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상업용의 경우에는 대부분 프로판을 쓰고 있다. 그러나 프로판의 경우는 다른 油種보다도 부족률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력한 수요감축조치의 시행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중에서 프로판 구입이 힘들게 되므로 각 가정에서는 즉시 프로판에서 연탄으로 연료를 전환할 수 밖에 없으며, 정부는 필요시 프로판에 대해서만 배급제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 반면에 접객·요식업소에 대한 프로판 공급은 기본적인 필요량 외에는 대부분 공급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問 가정용 프로판에 대한 배급제는 어떻게 실시되나?

答 프로판에 대한 배급제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읍·면·동단위로 프로판 사용가구가 파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각 시·도에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빠른 시일내에 배급대상자 명단을 작성할 계획이며, 배급대상자 명단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각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배급표를 가지고 판매소에 가서 배급표에 기재된 물량을 구입하게 된다. 그리고 각 가정별 배급물량과 배급장소(가스 판매소)는 사태 발생시에 프로판 부족률을 보아서 결정된다.

問 都市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가스공급은 어떻게 되나?

答 현재 서울, 釜山지역의 약 20만 가구가 都市가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은 연탄으로 代替가 어려운 구조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都市가스 산업의 소요 원료는 전량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사용가구에 대하여는 평시대로 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問 영업용 택시에 대한 LPG와 휘발유등의 공급은 어떻게 되나?

答 영업용 택시의 대부분이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LPG 부족률이 높기 때문에 택시의 감축운행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운행감축은 부수제 조정을 통하여 실시될 것이나, 구체적인 부수감축 수준은 사태 발생시에 교통부가 정하게 된다. 또한 읍·면지역의 휘발유를 쓰고 있는 영업용 택시에 있어서도 타 시·도 운행제한 등의 방

법을 통한 수요감축 조치가 실시되게 된다.

한편, 石油부족하에서 교통수단별 수송률을 감안하여 버스,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택시요금 인상등 교통요금의 조정도 고려될 것이다. 그리고 콜택시에 있어서는 대폭적인 운행감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問 官用 승용차에 대한 운행은 어떻게 되나?

答 정부에서는 石油부족에 따른 부담을 공공 부문에서 우선 감내한다는 원칙하에서 관용 차량중 경찰, 소방등 특수부문의 용도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운행을 억제할 계획이다.

問 국내 항공노선의 감축도 실시되는가?

答 여객기의 연료로 사용되는 JA-1이 일부 부족하게 되므로 항공회사에 대한 석유공급의 감량이 불가피해지게 되어 국내 항공노선의 일부 감축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노선별 운행감축은 교통부가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제노선에 대하여는 평시대로 운항될 수 있도록 필요한 물량을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問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은 어떻게 되나?

答 자가용은 수송효율면에서 대중교통수단보다 불리하므로 자가용에 대하여는 대폭적인 운행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하여 직접적인 운행제한조치와 함께 주유제한조치가 병행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問 해상 수송용과 화물차량용에 대한 연료공급은 어떻게 되나?

答 해상수송과 화물수송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하여 이 분야에 대하여는 필요한 물량을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問 2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연료 공급은 어떻게 되나?

答 일상생활에서 2륜차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2륜차의 연료 소비량이 적은 점등을 고려하여 2륜차에 대하여는 평시대로 필요한 량을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問 농사용과 어업용 油類공급은 어떻게 되나?

答 농사용과 어업용에 대하여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량을 전량 공급할 계획인데, 석유유통질서가 극히 혼란하게 되면 농협과 수협을 통한 할당공급도 고려할 방침이다.

問 주유소와 충전소의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

答 버스, 택시등 운수부문의 수요감축을 위하여 교통수단별로 운행감축조치가 실시되지만, 수요감축의 보완을 위하여는 주유소 및 충전소의 영업시간 단축과 휴일제 실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태 발생시에 動資部가 정하게 될 것이다.

問 모든 차량에 대하여 수요감축 조치가 실시되는가?

答 그렇지 않다. 石油부족사태하에 운행 감축은 영업용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자가버스, 자가용, 관용 등 일반차량에 대하여만 실시되고, 의료용, 경찰용, 소방용, 언론기관용, 통신용과 같은 특수부문의 차량은 평시와 같이 운행된다.

問 자가용 승용차와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관광버스 등에 대한 수요감축은 일률적으로 실시되게 되나?

答 모든 차종에 대하여 동일한 수요감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와 수송효율을 기준으로 상이한 운행감축률을 적용하게 되는데, 자가용 승용차나 자가버스 및 관광버스에 대한 운행감축률은 높이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운행감축률은 낮출 계획이다.

問 외국회사의 항공기, 선박에 대한 급유는 어떻게 되나?

答 외국회사의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급유를 국제병커링이라고 하는데, 국제병커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평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나, 사태진전을 보아가면서 필요시에는 다음 기항지까지의 소요분만 공급하는 감축조치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